

Born in 1983, Chris Rivers is a self-taught artist from Manchester, England. A former professional rock drummer, Rivers began painting in 2014. His large and dramatic oil paintings are bold, abstract displays of charged colour and fine, surrealistic detail.

Not everything is as it first seems in these worlds. Soft light filters through overlaying mists of complimentary tones, gradually swelling with dramatic saturated colour before receding into the image. Upon closer inspection, these clouds are populated by minute details; flowers, insects, figures and other characters scatter and interact across the painted surface, offering a sense of scale to the great haze of abstract colour. Distinct rococo elements can also be detected, as curvilinear motifs fade in and out of the vibrant, bustling compositions.

"It's about the things you don't notice at first," states Rivers, "a contrast between innocence and something darker." In this way, layers of narrative, emotion and atmosphere surge against each other. Conflicting yet complimentary, the image is built upon this ensemble of disparate and harmonious elements. These paintings are accomplished explorations of such contrasts, where subtle details are framed against turbulent backgrounds, light against dark, building dense and complex narratives.

1983 년생인 크리스 리버스는 영국 맨체스터 출신이며 공식적인 예술 교육을 받은 적 없는 독학 아티스트입니다. 그는 한때 프로 록 밴드의 드러머였으며, 2014 년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크고 극적인 유화 작품들은 강렬한 색채와 섬세한 초현실적 디테일을 특징으로 하는 대담한 추상적 표현입니다.

그의 예술 세계에서 모든 것이 처음에 보이는 그대로가 아닙니다. 부드러운 빛이 보색 톤의 안개를 통해 스며들며, 점차 극적인 강렬한 색상으로 부풀어오르다가 이미지 속으로 사라집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구름 속에는 꽃, 곤충, 인물 등 미세한 디테일들이 흩어져 서로 상호작용하며, 추상적 색채의 거대한 안개 속에서 비례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독특한 로코코 요소들이 감지되기도 하며, 곡선 모티프들이 밝고 혼잡한 구성 속에서 사라지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크리스 리버스는 "이것은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순수함과 어두운 무언가 사이의 대비입니다." 이처럼, 서서히 다가오는 서사, 감정, 분위기들이 서로 충돌하며, 그 속에서 조화롭고 상반된 요소들이 결합됩니다. 이 작품들은 그러한 대비를 탐구하며, 미세한 디테일이 격렬한 배경과 대조를 이루고, 빛과 어둠이 맞물려 복잡하고 밀도 높은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